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해 동맹 상호운용성 높인다

한미연합사, 성신여대와 업무협약
통역장교·병·군무원 교육 기회 마련

우리 군이 한미연합작전에 필수적인 통번역 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지난 11일 성신여자대학교와 ‘통역·번역 인재 양성 등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연합사가 민간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 영어와 통번역 전문성을 갖춘 성신여대 교수진의 지원을 받아 군내 통역장교·병·군무원의 전문성을 기르겠다는 취지다. 성신여대는 국방·외교·안보 분야 통역전문가 양성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희망하는 성신여대 재학생들은 연합사



강신철(오른쪽)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지난 11일 ‘통역·번역 인재 양성 등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부대 제공

통번역 실무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연합사는 재학생들이 한미동맹을 직접 경험하고 연합작전을 이해할 수 있게 캠프 험프리스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성신여대 주관 통역·번역 교육 프로그램과 통번역 경진대회, 연합사 주관 영어 스피치 대회에 상호 참가하기로 협의했다.

연합사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군사·외교 전문교육과 군사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 교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진(육군소장) 연합사 작전참모차장은 “연합작전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작전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은 연합사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번역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도 “안보와 군사 현장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통번역 역량을 향상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협력 모델은 교육의 실전성과 전문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해군 호위함 탐색레이다 성능 개선...작전·생존 능력 향상 기대

해군 호위함의 탐색레이다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서다. 함정의 해상작전 능력과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0일 해군에서 운용 중인 인천급(FFG-I-2500톤) 호위함 탐색레이다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함정용 탐색레이다는 표적을 탐지하고 함포사격 지원 등을 수행하는 함

정의 핵심 장비다. 방위·거리·고도 등 3차원으로 표시된 표적의 정확한 정보를 지휘 통제체계에 전달해 함정의 효율적인 방어와 공격능력을 보장하는 무기체계다.

인천급 호위함에는 2013년부터 적용돼 작전수행능력 향상과 생존성 보장에 크게 일조해 왔다. 그러나 장비 운용 간 열을 낮춰주는 냉각기능이 약화하고 핵심부품 정비 소요가 증가하면서 성능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방사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적용해 탐색레이다 내부에 공기를 공급하는 환경제어부에 냉매 시스템을 추가하고 공급수 유량을 조절하는 등 냉각 방식을 개선했다. ‘반도체송수신조립체’를 기존 저효율 고발열 특성의 실리콘 계열에서 고효율 저발열 특성의 질화갈륨(GaN) 계열 신형 부품으로 교체하고, 전원공급기도 직렬 회로구조에서 병렬 회로구조로 바

방사청,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고효율 저발열 시스템으로 안전성 ↑

꿔 운용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방사청이 국방기술포질원에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위탁한 이후 처음으로 종료된 사업이다.

박정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운용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무기체계 성능과 운용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B-52H 전략폭격기 전개한·미·일 공중 훈련 시행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공중 훈련에서 미 B-52H 전략폭격기와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일본 F-2 전투기 등이 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합참에서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한 가운데 3국은 같은 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공중 훈련을 전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은 오늘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

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 훈련을 펼쳤다”고 밝혔다.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공중 훈련을 했으며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북, 러에 포탄 계속 지원”

152mm 기준 1200만 발 이상 추정
국방정보본부, 규모 꾸준히 추적 중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2만8000여 개를 러시아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정보본부는 “152mm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1200만여 발로 평가된다”고 지원 규모를 추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군은 유관기관 및 우방국과 협조하에 북한의 최신 무기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포탄에 이어 미사일과 자주포 등을 지원했고, 전투 병력까지 파견했다. 이와 관련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무기) 비축량이 거대하고 24시간 내내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 약 40%를 북한제로 추정했다.

김해령 기자